

일년 내내 '비수기' 걱정 뚫

# 반짝 아닌 '사계절아이템' 뜬다

**카페 오가다 메인메뉴 냉·온 가능 텀브커피 정기적인 신메뉴 출시 디저트39 제과·디저트 기복 적어**



/카페 오가다



/텀브커피



/디저트39

선택한 창업아이템이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비수기가 지속되거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 급격히 인기가 식게 되면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현명한 예비창업자라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사계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 전문가들은 사계절 지속 가능한 메뉴 구성의 '비계절성'이 성공창업의 핵심이라 말한다. 창업 아이템 및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계절의 변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수기를 대비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카페의 경우 성수기인 여름에는 매출이 상승하지만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매출 하락으로 대부분의 매장들이 수익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절성 창업 아이템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일 년 내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티 카페 창업이 생계형 사업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카페 오가다는 건강한 한국의 전통차

를 베이스로 다양한 맛과 형태의 잎차, 열매 등과 혼합한 차별화된 티 메뉴를 선보이며 커피를 통한 높은 카페인 섭취에 대한 우려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한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카페 오가다의 모든 블렌딩 티 메뉴들은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해 일 년 동안 주력 메뉴로 구성할 수 있기에 이탈 고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메뉴 제조,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에도 효율적이다. 카페 성수기인 봄, 여름철에는 국내 특산지의 건강한 생과일주스, 스무디와 함께 아이스 블렌딩티가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따뜻한 음료 소비가 이뤄지는 겨울에는 '차는 본래 따뜻하게 즐긴다'라는 소비자 인식으로, 4계절 오가다만의 브랜드 강점을 살려 비수기에도 높은 매출을 유지한다.

텀브커피는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메뉴를 정기적

으로 출시하고,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연 4회 계절에 맞춰 출시가 된다. 최근에는 가을을 맞아 부드럽고 달콤한 클라우드 크림 음료 3종(클라우드 비엔나·클라우드 라떼·클라우드 티라미수)를 선보였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구비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디저트39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해외 인기 디저트 39가지를 소규모 매장에 모아 판매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케이크, 파이,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다양성을 살려 변화하는 트렌드나 계절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과 디저트는 계절 변동에 따른 매출 기복이 거의 없다. 또한 브랜드 자체 제과생산센터에서 연구 끝에 개발된 완제품 출하 기술은 매장 내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는 조리과정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공공근로 참여자 근무 시작... 월급 20만원 ↑

**서울시** 최저임금 상승 요인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하루 6시간 근무 때 월평균 임금은 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을 포함해 140만 원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5500명의 시민(서울시 500

명, 자치구 5000명)이 참여한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 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혁신벤처 7개 단체, 신년인사회 열고 '생태계 구축' 다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공동으로 열고 무술년 한 해를 함께 기원했다. 지난해 이들 7개 단체는 민간 스스로 혁신벤처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의지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9일 열린 '2018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최수규 중기부 차관,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안건준 벤처협회장,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커팅을 하고 있다.

/여성벤처협회

**르포 | 최저임금 인상의 '명과 암'**

## 몇달 지켜보자는 사장... 자리 걱정하는 알바

**알바생 기대 속 조마조마 눈치바  
점주들 인원축소 등 고민에 한숨  
"사장-직원 대립 부추겨" 의견도**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주는 사람은 주는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대로 달갑지 않다.

700만명에 이른다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먹고 살길이 걱정이다. 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소위 '알바생'들도 시급을 더 받기 전에 자칫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다.

수 많은 음식점, 편의점 등이 몰려있어 최저임금의 명암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서울 종로와 명동 일대를 지난 주말 다녀왔다.

**◆오르는 건 좋지만 일자리 없어질까 '걱정'**  
"시급 오르는 게 마냥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씨(25)의 말이다. 이씨는 전문대 자동차 정비과를 나와 중소기업에도 일했었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그만뒀지만 사람구하는 곳이 많지 않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식당일을 시작했다.

하루 꼬박 12시간 일하고 있는 그는 이곳을 자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씨는 "알바 입장에서선 (최저임금 상승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존 알바비로는 월세와 교통비 등을 내고 나면 빼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장님 눈치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다. 내가 그만뒀어야 하나 걱정도 됐지만 사장님이 몇 달은 지켜보자고 해 아직까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는 많은 알바들이 종사하는 곳 중 하나다.

지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피씨방에서 일하는 대학생 김씨(22)는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피씨방의 경우 최근엔 카페까지 겸업을 하면서 알바생이 자리 정리뿐만 아니라 커피 같은 음료 종류를 비롯해 핫도그, 라면, 오므라이스 등 식사류까지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편의점은 판세상이다. 편의점은 예전부터도 시급이 낮은 편이었다. 야간수당을 받아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는 박씨(35). 두 아이의 아버지 박씨는 일자리가 있는 것만해도 감지덕지다. 박씨가 일하는 매장은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 사장이 인원을 줄였다. 바쁜 시간엔 아예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일을 한다. 박씨는 "시급이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 절감이다. 혹시 내가 짚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했었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어 언제 새 일을 구하나 걱정도 많았다. 나처럼 투잡하는 가장들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매장 직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종로구 소재 한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오씨(59)씨도 마찬가지다. 오씨는 10년간 간병인 일을 했다. 젊을 때

간호사로 일했던 덕분에 일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병원 일을 시작했다.

오씨는 "아직 바뀐 건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떠도는 얘기만 있다.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일당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질 것 같다. 나이도 있어 종일은 못하는데 그마저도 줄어들까봐..."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장은 부담되지만...중장기적 해안 마련 '절실'**

명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씨(52)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명동에서 가게를 두 개 운영할 정도였다. 매니저 한 명에 직원 네 명을 뒀었지만 사드 여파를 직격으로 맞아 매출은 급속히 악화됐다. 직원은 물론 매장으로 하나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매니저와 단둘이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박씨는 "매장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인건비는 큰 부담이었다. 매니저한테는 말 못 했지만 차라리 아내랑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고민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상승에 동의하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게주인도 만났다.

종각 일대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당장 피해를 본다"며 하지만 "알바생들이 적게 받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부정적이다. 은근히 점주와 직원이 대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지, 현장 목소리를 전해야지 이런 큰 이슈가 가족 같은 매장 식구들과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임원재 기자 in@

## 저소득층 등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가구당 9000만원 이내 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보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탐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에 신청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이범종 기자

## 화재시 향수·디퓨저가 불씨 키워

서울 생활화학제품 절반이 위험물

서울시내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 제품 중 상당수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 대규모점포 9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604종 가운데 311종이 화재 위험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과 향수, 손소독제, 벌레기피제 등이다. 시는 이들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인화성·발화성 등 성질이 확인된 311종은 손소독제와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오일, 방향제(디퓨저), 차량연료 첨가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인화점 40도 이하로 상온에

서 작은 점화원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고위험군 제품은 195종이었다. 가장 많은 품목은 화장품(37.4%)과 방향제(28.2%)였다.

인화점이 낮은 제품을 함부로 방치될 경우, 정전기 같은 작은 점화원에도 착화 발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여름철 직사광선을 받는 밀폐공간에 방치할 경우 더욱 위험하다. 주요 제품의 인화점은 ▲손소독제 20~31도 ▲향수 16~23도 ▲디퓨저 17~126도 ▲매니큐어 10도 ▲리무버 18~51도 ▲차량연료 첨가제 14~174도다.

생활화학제품 외에도 98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 5만여 종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5000여 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점포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혼재된 위험물 때문에 연소 확대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종 기자